

■ ‘위기의 광주·전남 정치권’ 해법은 없다

“호남 패배주의 극복하고 스타 정치인 키워내자”

DJ 이후 야권 분열이 위기 초래

한화 갑 평화민주당 대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DJ를 중심으로 했던 구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서리를 맞은 셈이었다.

여기에 구호만 앞세운 일부 정치 세력은 기존 야권의 정치 질서를 봉괴시키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민주·개혁 진영의 신뢰도 하락을 일으켰고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를 불러왔다.

물론, 통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구 민주계가 DJ의 정치 철학을 습득,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도 크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물을 키우고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야 했다. 아쉬움이 큰 부분이다.

국민공천시대 변화를 읽어야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과거와 현재를 떠나 광주·전남 정치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아직도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한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등을 보더라도 광주·전남 정치권은 시대적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취적이고 선명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또한, 낙후된 지역 경제 현실속에서 광주·전남 정치권은 타 지역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인물이 없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인물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경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천권은 지역민에 있다.

지역 유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

시를 통해 미래 비전을 갖춘 정치인을 발굴해 키워야 한다.

여기에는 비판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격려가 더 필요하다. 다선이라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인물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호남이니까 안 된다는 ‘호남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호남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호남이니까 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호남 패배주의 극복이 광주·전남 정치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새인물 영입, 극좌노선은 안돼

박준영 전남도지사



세번째는 전

술적 실패를

꼽고 싶다.

민

주당이

통합과 연대를 너무 일찍 강조하면 서 유시민·이

해찬·문재인씨 등 친노그룹이 당 밖에 남게 됐고 이하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인물 영입과 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민들도 정당정치가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호남 인사는 민주당 대표나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안된다는 전술적인 판단을 자제했으면 한다.

다양한 세력 검증 받을 기회를

오병윤 전 민노당 사무총장



광주·전남 정치권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시민의 정치 의식을 따라 가지 못하는 기존 정당들의 관료적이고, 19세기적 정당 운영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40년 가까이 지방권력을 독점해 온 민주당의 안일과 무사함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싶다.

민주당이 지역에서 일당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전반이 보수적이고, 기득권 정치인 중심으로 정치질서가 짜여졌다.

이로 인해 정치개혁을 추구해온 지역의 신진 정치세력과 대중 정치가 보수화 기득권 정치에 가려져 왔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지역 정치는 고여 있는 물과 같았고, 지역 정치권 체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독점 정당 억압구조 깨뜨려야

이병완 광주서구의회 의원
〈국민참여당〉



이명박 정부 들어 광주·전남은 정치 생활에서 정치 소비자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정치적 중심이며 주체였던 광주·전남에서 대권 도전 후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단편적이다.

이는 모두 광주·전남 정치인들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과정에 많은 지역 정치 지원들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청와대, 관료, 사법부 등등 많은 분야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도전하는 새 시대 정치인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현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기를 몰고 왔다.

특히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가 지속하면서 많은 정치 자원들이 그 속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고, 그 체계 속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도전과 새로운 의제 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위기를 자초한 원인이다.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광주·전남도 새로운 위상과 포지션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독점 정당의 억압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유권자들의 뜻도 있지만,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고, 이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의 정치권도 정체된 과도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다.

개인 아닌 ‘집단 리더십’ 필요

김보현 광주시의회 의원
〈민주당〉



정에 실패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

고 실업자·비

정규직·노인층

등이 복지 사

각자대로 내몰리는 현실에 명확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부하는 민주당의 설자리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개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정책정당으로 민주당이 거듭나는 길이 지금의 정치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정리=임동욱·장필수·최권일 기자 tuim@

2011년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